

(1) 한국사

[광주]스티마고시학원 장지현선생님 제공

1.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요동반도에서 한반도에 걸쳐 있었음을 알게 해 주는 유물을 모두 고르면?

- | | |
|-------------|------------|
| ㄱ. 조개껍데기 가면 | ㄴ. 거친무늬거울 |
| ㄷ. 비파형 동검 | ㄹ. 미송리식 토기 |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④:

고인돌, 거친무늬거울, 비파형동검,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특징적 유물에 해당한다. (『장지현한국사』 42쪽 참조)

※유사유형: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2월 문제풀이)

- ①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켰다.
② 대동강 유역에서 건국하여 만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③ 그 세력권이 미송리식 토기의 출토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④ 특징적인 유물로 비파형동검과 북방식 고인돌을 꼽을 수 있다.

정답 ②

2.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부여, 고구려계의 이주민 집단이었음을 말해주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제 왕족의 성이 부여씨이다.
② 영산강 유역의 마한 소국들을 정복하였다.
③ 건국신화에서 비류와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④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 무덤은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식 무덤 양식을 이은 것이다.

정답 ②:

백제의 건국세력을 묻는 문제이다.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이고 『삼국사기』의 건국신화, 백제 초기의 돌무지무덤 등이 부여, 고구려계통이 건국했음을 알려준다 (『장지현한국사』 79쪽 참조).

※유사유형: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1월단과문제)

- ① 백제의 건국 세력은 부여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다.
② 백제의 지배층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유이민 집단이었다.
③ 백제는 고구려와 비슷한 시기에 중앙 집권국가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④ 백제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되었다.
⑤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것은 초기 무덤 양식의 유사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답 ③

3.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과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었다.
②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③ 송의 판본은 고려의 목판 인쇄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④ 고려는 송의 군사적 제의에 응하여 거란을 협공하였다.

정답 ④: 고려의 외교정책은 북진정책과 친송정책이다. 송과 친했던 것은 경제, 문화적 욕구 때문이었으며 송에서 들어온 자기나 서적은 고려 자기와 인쇄술에 영향을 주었다. 고려는 군사적으로 송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4. 18세기 조선 사상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북학사상은 인물성동론을 철학적 기초로 하였다.
② 낙론은 대의명분을 강조한 북벌론으로 발전되어 갔다.
③ 인물성이론은 대체로 충청도지역 노론학자들이 주장했다.
④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사지냈다.

정답 ②:

18세기 조선의 사상계의 동향은 특히 노론 내부의 호락논쟁과 관련된 것이다. 충청지역의 호론은 인물성이론, 서울지역의 낙론은 인물성동론으로 북학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장지현한국사』 625쪽 참조).

※유사유형: 18세기의 논쟁인 (가), (나)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2월 단과 문제)

- (가) 사람과 사물이 귀하고 천함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하늘이라는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균등하다. 사물을 천하게 보고 인간을 귀한 존재로 보는 생각이야말로 진리를 해치는 가장 근본요인이다.
(나) 物에도 인의예지라는 도덕성이 있다. 다만 인간은 그 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물은 일부분만 가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은 인의예지신과 같은 고차적인 도덕성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① (가)-북학사상으로 연결되었다.
② (가)-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본다.
③ (나)-통상개화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④ (나)-충청도 지역의 호론의 입장이다.

정답 ③

5. 195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50년에 시행된 농지 개혁으로 토지가 없던 농민의 토지를 갖게 되었다.
② 1960년대에 임금은 낮았지만 낮은 물가 덕분에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지는 않았다.
③ 197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노동 3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④ 1980년대 초부터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 ①: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문제화 한 것이다. 1949년 시행되어 1950년 실시된 농지개혁은 자영농을 육성하고 지주제를 폐지하였다. 60년대 이후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설립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나 정부는 노동자의 3권을 크게 제한하였다 (『장지현한국사』 1049쪽참조).

6. 다음과 같은 문화 활동을 전후한 시기의 농업 기술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서예에서 간결한 구양순체 대신에 우아한 송설체가 유행하였다.
○ 고려태조에서 숙종 때까지의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한 「사략」이 편찬되었다.

<보기>

- ㄱ.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ㄴ. 원의 「농사집요」가 소개되었다.
ㄷ.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확대되었다.
ㄹ. 상품 작물이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③:

위의 문제는 고려후기의 문화 동향이다. 고려시대 농업기술을 찾는 문제이다. 상품작물이 광범위하게 재배된 것은 조선후기에 해당한다 (『장지현한국사』 315쪽 참조).

※유사유형: 고려 시대 농업 기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1월 단과 문제)

-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② 발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 ③ 고려 말에는 직과법 대신에 이양법(모내기)이 남부 일부 지방에 보급되었다.
- ④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 ⑤ 고려 후기에 이르러 권문세족들의 농업 기술 장려로 농민들의 경제 생활이 향상되었다. 정답 ⑤

7.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고려국왕 대흠무’라고 불렀던 발해 국왕대에 있었던 통일신라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 ① 귀족세력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었다.
- ②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하였다.
- ③ 의상은 당에서 귀국하여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 ④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남해와 황해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정답 ①: 고려국왕 대흥무는 8세기 후반 문왕이다. 문왕대의 통일신라의 상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 같이 공부해야 한다. 신라는 경덕왕 이후의 시기로서 녹읍이 부활되고 해공왕대에 각종 반란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한국사 단과 자료 중 일부

		통일신라		발해	
7세기	신왕	김흠돌의 난 진압(681) 만파식적, 국학, 감은사지3층석탑(682) 9주 5소경(685) 중앙관제 완성(686) 9서당10정, 관료전지급(687) 녹읍폐지, 세조(歲租) 차등지급(689)			
	효소왕	서시전·남시전설치			
			고왕	진 건국(698) 발해군왕으로 임명(713)→국호, 발해로 고침	
8세기	성덕왕	정전 지급(722)	무왕	일본에 사신파견(727) 장문휴, 산동의 등주공격(732) 당과 국교(733)	
		당을 도와 발해 공격→당과 국교재개(733)		당에 사신 파견	
	경덕왕	불국사·석굴암(751)		상경용천부로 천도(755) 발해 국왕으로 승격(762)	
		관료전폐지, 녹읍부활 (757)			
	해공왕	대공의 난(768) 96각간의 항쟁(770) 김지정의 난(780)	문왕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천손이라 칭함(771)	
	선덕왕			동경 용원부로 천도(785)	
	원성왕	독서삼품과 설치(788)		정효공주묘(792)	
			성왕	상경으로 재천도(794)	

8. 다음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용맹하여 근엄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좋은 발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 삼국지 동이전 —

<보기>

- ㄱ.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 ㄴ.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였다.
- ㄷ.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문헌고증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하였다.
- ㄹ.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가, 지,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sqsubset, \sqsubset$
④ $\sqsubset, \sqcup$

정답 ①:
자료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하는 역사서술을 고르는 것이다.
김부식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고, 『고려사』는 조선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왕과 창왕은 신우, 신창으로 규정하였다.

9.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던 왕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인들의 군역에 대한 절목 등을 검토하고 유생의 의견을 들었으며, 개선 방향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담당 관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1년에 백성이 부담하는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것이었다.

- ① 증보문헌비고가 편찬, 간행되었다.
- ② 노론의 핵심 인물이 대거 처형당하였다.
- ③ 통공정책을 써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④ 청계천을 준설하여 도시를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정답 ④:
 균역법을 시행했던 시기는 영조 때이다. 영조는 청계천을 준설하여 도시를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장지현한국사』 540쪽)

10. 영조 집권 초기에 일어난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청도에서 정부군과 반란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였으며 전라도에서도 반군이 조직되었다. 반란에 참가한 주동자들은 비록 전쟁에 패하고 관직에서 소외되었지만, 서울과 지방의 명문 사대부 가문 출신이었다. 반군은 청주성을 함락하고 안성과 죽산으로 향하였다.

- ①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경종의 사인에 대한 의혹이다.
- ② 반란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왕이 피난길에 올랐다.
- ③ 탕평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명분을 제공하였다.
- ④ 소론 및 남인 강경파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것이다.

정답 ②:
자료는 이인좌의 난이다. 소론과 남인이 경종이 독살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관군에게 진압되었다. 이 사건은 국왕 영조로 하여금 봉당관계를 재편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장지현한국사』 538쪽).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 ① 교관검수 ② 살생유택
③ 돈오점수 ④ 임전무퇴

정답 ③

16. 다음의 역사서가 편찬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고구려)가 망한 다음 김씨(신라)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발해) 북방을 차지하고는 발해라 하였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당연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하는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 ① 양명학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② 성리학 수용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③ 서얼 출신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
④ 우리 역사의 통사 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정답 ③: 역사서가 나온 시기와 당시의 상황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는 18세기 유득공의 『발해고』이다. 유득공은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17. 다음 역사서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사제강』 — 서인의 입장에서 북벌 운동을 지지하였다.
② 『동사(東事)』 — 봉당정치를 비판하였다.
③ 『동사강목』 — 성리학적 명분론을 비판하였다.
④ 『동국통감제강』 — 남인의 입장에서 왕권 강화를 주장하였다.

정답 ③:
이 문제는 종래에 9급 한국사 문제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 즉 기존보다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이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성리학적 명분론과 실증적 역사 인식을 대표한다. (『장지현한국사』 640~641참조)

18.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국국제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였다.
② 구본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③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지방 진위대를 대폭 증강하였다.
④ 간도지방에 이주한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였다.

정답 ①: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관리 임면권, 조약 체결권과 사신 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장지현한국사』 730쪽 참조).

※유사유형: 광무개혁기 정부의 개혁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3월 문제풀이)

- ① 실업 기술 교육을 장려하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② 교통, 통신, 전기, 의료 분야에서 근대 시설을 확충하였다.
③ 원수부를 설치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를 증강하였다.
④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근대적 공장과 회사들을 설립하였다.
⑤ 의회식 중추원을 설립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 청원 사항을 심의하였다.

정답 ⑤

19. 6·25 전쟁 이전 북한에서 일어난 다음의 사건들을 연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북조선 5도 행정국 설치
ㄴ. 토지개혁 단행
ㄷ. 북조선 노동당 창당
ㄹ.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

-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ㄹ→ㄷ ④ ㄹ→ㄱ→ㄴ→ㄷ

정답 ④: 북한의 역사를 나열하는 문제이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1945.10) 조직-‘북조선 5도행정국’ 설치(1945.11)-토지개혁(1946.3)-북조선 노동당(1946.8) (『장지현한국사』 971쪽 참조)

20. 1919년 3·1 운동 전후에 국내외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은 시베리아에 출병하여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다.
②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③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내세워 전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④ 산둥성의 구 독일 이권에 대한 일본의 계승 요구는 5·4 운동으로 인해 파리평화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다.

정답 ④: 일본은 사회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을 들어 1918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하였다. 1차 대전 후 일본은 중국 정부에 21개조를 요구하였다. 21개조의 내용은 일본이 남만주와 몽골을 차지하고 중국에서 독일이 가졌던 권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고 중국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났다.

오타가 있을수 있으니 그 점 고려하세요~~